

# 광주, 1회용품 확 줄인다

### 11월 '사용제한 제도' 확대 시행 종이컵·우산 비닐 등 21개 품목 1회용품 없는 청사만들기 본격 추진

광주시가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광주시민들의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최근 환경단체가 광주시의 1회용품 줄이기 정책에 대해 낮은 평가를 줬지만, 광주시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1회용품 사용을 확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오는 11월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 확대 시행을 앞두고 '1회용품 줄여가게', '용기내 행사'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이 추가되며 21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또 1회용 봉투·쇼핑백, 응원용품의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 금지로 준수사항이 강화됐다. 확대·강화된 제도는 1년간 제도기간을 운영 중이며, 제도기간이 끝나는 11월 24일자로 1회용품 사용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광주시는 제도기간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자치구와 함께 대상업소 2600여곳에 대해 지도점검(8월말 기준)하고 외식업 등 관련협회에 협조공문 발송(2360건), 1회용품 모니터링단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연산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홍보캠페인(6회) 등을 펼쳤다.

광주시는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식품접객업, 종합소매업을 대상으로 '1회용품 줄여가게' 신청을 받았다.

1회용품을 매장 내에서 보이지 않게 비치하고, 1회용품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문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자발적 참여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180여 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희망매장은 자원순환실천 플랫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1회용컵, 배달용기를 줄이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공공배달업과 연계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5월 KIA 타이거즈와 친환경야구장 조성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티셔츠 8만 5000벌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의 투명페트병 1만 5000kg을 별도 배출했으며(8월 말 기준 1벌당 175g), 친환경 종이 응원봉을 제작·판매하고 있다.

시즌 종료까지 식음료 매장 할인을 계속해 관람객 인식을 바꿔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배달업(위메프)과 '용기내 행사'도 펼치고 있다. 광주시는 다회용기 배달 및 포장가능 매장 160여곳을 발굴, 위메프에서 다회용기, 개인용기로 배달주문하거나 포장하는 시민에게 배달업 점수(포인트)로 주문금액의 10%, 최대 3000원을 지급(예산 소진 때까지)한다.

광주시는 또 다회용품 대여사업을 자치구(총 60여 개소)까지 확산해 13만여개의 다회용품을 사용, 온실가스 배출량 6.6t(1개당 51g) 감축 효과를 거뒀다. 지난 9월 문을 연 광산구 다회용기 지원센터에서는 접시와 그릇, 컵, 수저 등 9개 품목을 20여 개 행사에 무상 대여(예정)했다.

광주시는 하반기에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시청 직인대상 1회용 장례용품 배부를 중단하고 착한 소비를 실천하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를 자치구와 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또 자치구·1회용품 모니터링단 등과 함께 확대 강화된 1회용품 사용규제 집중 홍보 및 현장 계도활동도 펼친다.

내년에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등을 연계한 개인용기 사용자 인센티브 지급, 배달업 연계 다회용기 서비스 운영 등 다회용기 활성화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밖에 자원순환협의체, 자치구와 함께 마을 공동체 거점공간 안에 분리배출을 돕는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등을 통해 시민 대상 1회용품 감량 및 재활용 교육을 실시한다.

이정신 자원순환과장은 "광주시의 하루 폐합성 수지류 발생량은 141t(2020년 기준)에 달한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우리 모두를 위해 1회용품 줄이기에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무등산 역사군락서 가을 만끽 10월 말 절정을 이루는 광주시 북구 무등산 역사군락은 서석대, 입석대, 장불재, 백마능선 구간에서 볼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제공>

##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친환경 도시락 주간'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가을 성수기 맛이 국립공원 '친환경 도시락 주간'을 이달 20일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친환경 도시락 주간은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카오맵 채널 '무등산동부 내 도시락'을 부탁해'를 통해 수령장소, 시간, 가격 등 도시락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주문하면 도시락을 받아 볼 수 있다.

기간 내 무등산동부사무소 친환경 도시락 서비스를 이용하고 SNS에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를 태그해 리뷰를 남기면 우수 리뷰를 선정해 총 20명을 대상으로 소정의 상품도 제공한다.

또 이달 15일에는 화순군 이서면의 도원야영장에서 에그브레드, 그레놀라 요거트, 과일 라메 등이 포함된 브런치 도시락 무료 시식회도 만나볼 수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다문화가족 대상 21일부터 '북구에서 하루여행' 운영

광주시 북구가 다문화 가족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북구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북구에서 하루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북구에서 하루여행'은 다문화가족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자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 역사·문화 이해에 도움 되는 북구의 대표 관광지 일일 여행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공감과 더불어 거주 외국인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하루여행은 100여 명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여 가족은 ▲광주민속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 ▲북구맛있는예술여행센터 ▲남도향토음식박물관 ▲호수생태원 일일 등을 가이드의 유익한 해설은 물론 사진작가 촬영, 체험 부대행사와 함께 즐길 수 있다.

여행 중 다양한 체험도 진행된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는 시설 관람뿐만 아니라 지역 전통음식을 가족과 함께 직접 만들어보고 맛보며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광주 전통음식 무형문화재' 이수자의 음식 체험강좌도 제공된다.

운영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이며 기간 중 토요일과 일요일(오전 9시-오후 5시 30분)에 해당 25명 내외(5-7가족)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총 4회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13일까지 북구청 여성보육과로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 원안대로 이행하라"

### 광주·전남 환경단체들, 정부 '1회용품 보증금제' 정책 규탄

광주·전남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1회용품 보증금제' 정책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환경부는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 원안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환경부가 일회용품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른 것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1회용컵에 담긴 음료 판매가격에 컵 1개당 보증금(300원)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받은 뒤 빈 컵을 매장에 반납할 때 돌려주도록 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제도다.

당초 환경부는 지난해 이 제도를 시행하려 했으나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만 시범 시행하고 전국 시행은 제도기간을 두며 사실상 유예했다.

이에 환경 단체들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일부 단속 또는 제도기간 부여의 자율권을 주겠다는 것은 환경부가 사실상 보증금제도 전국시행을 포기한 것과 같다"면서 "환경부가 전국 시행 계획을 철회하고, 지자체에 떠넘기며 책임을 방기하고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는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즉각 전국 시행을 요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광주·전남 국립공원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국립공원사무소, 임산물 채취·야간 산행·흡연 등 29일까지

가을철 산행 성수기를 맞아 광주·전남 국립공원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는 탐방객 증가에 따라 이달 29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원 내 임산물 채취, 야간산행, 셋길 출입, 흡연, 야영행위(차박 등) 등이며 위반행위자는 자연공원에 따라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도 11월 5일까지 국립공원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번 집중 단속에서는 도토리 등 임산물 채취, 고지대 셋길출입, 불법주차 등 주요 불법행위를 주로 살핀다.

또 집중 단속 기간 비박행위, 야간등반, 셋길출

입 등 안전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의 집중 관리를 위해서 야간 특별단속팀 운영, 무인비행장치 활용한 순찰 등 현장 관리도 실시한다.

장수면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연보전과장은 "가을성수기 집중단속을 통해 자연훼손 예방과 탐방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전원범 문학 전집은 시 325편이 담긴 「망초꽃으로 서서」, 시조 214편으로 구성된 「선운사 동백꽃」, 동시 281편을 수록한 「동근해를 공굴리며」 그리고 대표작을 엄선한 「전원범 문학선 99」 등 총 4권이다. 전 시인은 1960년대부터 동시도 시가 돼야 한다고 선구적으로 주장하고 '동심의 시'라는 개념을 정립해 오늘날 동시의 수준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합뉴스> 2023. 4. 27.

그의 시론을 압축하면 '시는 어렵지 않아야 한다. 시는 일상의 말이 아니다. 시어는 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석된 말'이라는 주장이다. - <뉴스 1> 2023. 4. 29.

'해의 시인'이라는 별칭은 그가 발표한 연작시 '해'에서 비롯됐다. 모두 70여 편을 썼고 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광주일보> 2023. 4. 26.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 해를 공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

